

제2의 주식 국산밀 자급률 1.7% 불과

김중희 “농진청 앞장서서 고품질 밀 품종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제2의 주식임에도 자급률은 2%에 머물고 있는 국산밀의 식량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



품종개발을 비롯한 가공방식 개발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17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제.부안·사진)은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에 대해 “국산 밀에 대한 수요자들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정한 2022년 밀 자급률 목표치는 9.9%임에도 2017년 밀 자급률은 1.7%로 불과했다. 낮은 자급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되어진 국산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중희 의원은 “2017년 기준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2.4kg이고, 연간 수입되는 수입밀은 230만톤 이상이지만 국산밀 3만 톤이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앞장서서 국산 밀에 대한 소비 정책과 함께 국산밀 품질관리 및 작부체계 다양화 기술 개발을 통해 수요자들 선호가 높은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밀 품종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계류의안 등 82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5일 제 35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2일간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전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지난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과 교육감을 상대로 각종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 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 1일차 16일(화)에는 박용근(장수), 성경찬(고창1),황영석(김제1),최영일(순창),김희수(전주6) 의원이, 2일차 10.17(수)에는 진형석(비례),홍성임(비례),이명연(전주11),최영심(비례),이한기(진안)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총 82건(조례안 16, 동의안 등 66)의 의안을 심사 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물과 농약 들고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지난 12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제품과 비슷한 농약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라돈 검출된 송천동 아파트 ‘전면 교체’ 합의

702세대 중 154세대 옥실 내 세면대 상판



을 모색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태 조사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격적 실태파악을 하고 관련 건설사에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12일 시공사

인 P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P사 대표이사는 “즉각적으로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건축 자재 라돈검출 문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송천동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다

이춘석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논리 약해” 주장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사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 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밝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일·소통·공부하는 의회 실천 ‘현지활동’ 박차

도의회 교육위, 교육행정 성과·추진상 미비점 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전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교육위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동안 도교육청 전반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현지활동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활동으로 도교육청 현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경험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교육시설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위는 지역별·정책별로 나눠 ▲전주(원도심학교 활성화와 석면공사 등 시설점검) ▲군산(엘리트체육 육성 현황) ▲익산(미세먼지 대책 마련) ▲고창(교직원 인사 신속 점검) ▲부안(생존수영 등 안전체험관 신속 점검) 등을 방문해 의견수렴한다. 또, 남원교육문화회관과 전북학생교육원을 방문해 수영장과 학생수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교육행정에 대해 그 동안의 성과와 추진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하고, 2019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정된 교육 예산이 도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현지의정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함목소리를 냈다. 김명지 의원은 “현지활동을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추진 또는 운영과정상 문제점 유·무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 모색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의 부실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안전 문제와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면서 “교육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을 사전 점검해 차단하는 현지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교육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 7명 의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이루면서 공부하는 교육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박주현, 농업기술 실용화 절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현(비례·민주평화당 활동) 의원은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에서 연구개발된 1900건의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술의 실용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는 기술의 실용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기술이 전파되면 쌀 공급 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부안**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부안해수욕장 일원

2018 부안 노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료승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부안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부안)
먹거리: 특산물 전시 및 시식

부안군